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3. 08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노르웨이 연어회사 Mowi, 새로운 양식세에 소송 준비..... 3
2. 청색 경제가 아프리카에 줄 수 있는 유익 5

- 노르웨이 연어 양식회사 Mowi는 익년도부터 시행될 노르웨이 정부의 새로운 양식세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의도를 표명했음.
- Mowi는 8월 23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양식세 부과를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음.
- 금년 5월에 노르웨이 정부는 연어와 송어 양식업자들의 이익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제도를 발표했음. 원래는 40%였으나 추후 25%로 조정되었음.
- Mowi는 법인세를 포함하면, 이는 한계 세율이 47%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최초의 제안으로 했으면 전체 과세율이 62%가 될 수 있었음.
- “우리는 의회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이 결정으로 이미 37억불에 이르는 새로운 투자가 중지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Mowi CEO Ivan Vindheim이 회사 2분기 실적발표 후 말했음.
-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새로운 양식세를 “파괴적”이라고 한 Vindheim은 분석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음: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보다 업계 친화적인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희망을 갖고 2025년 선거 때까지 위축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 8월 23일에 Vindheim은 노르웨이 신문 VG에 Mowi가 새로운 세제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표명했음.
- “노르웨이 정부는 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5개 거대 연어회사들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그는 신문에 말했음.
- “노르웨이에는 기업 규모에 대해 차별하지 않았던 기본 세제가 기존에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한다.”

- 또 하나의 거대 회사인 Lerøy Seafood 또한 2분기 실적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세제를 비판했음.
- CEO인 Henning Beltestad는 정치인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이 멋진 업계의 발전을 짓밟는 조치를 도입할 것이 아닌, 보다 큰 그림을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정치인들은 노르웨이 연안을 따라 지속적인 개발과 고용이 보장되는 조치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르웨이 업계가 글로벌 녹색 전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세계 최대의 연어 양식회사인 Mowi는 2023년 2분기에 13억7천만 유로의 사상 최고 매출을 올렸음(전년 동기에는 12억3천만 유로).
- 세전 이익은 가격 하락과 양식업 비용 상승으로 작년 3억2천만 유로에서 2억9천9백만 유로로 감소했음.
- 2분기에 10만7,500톤을 수확한 Mowi는 연간 매출 전망인 484,000톤(전년 대비 4.4% 성장)을 유지했음.

출처: www.just-food.com¹⁾

1) <https://www.just-food.com/news/mowi-to-look-at-legal-avenues-against-salmon-tax/> (8월 23일 기사)

- 청색 경제(Blue Economy)는 바다,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수생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활동들에는 생계형 및 상업형 어업과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과 같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들이 포함된다. 아프리카 연합(AU)은 아프리카의 청색 경제가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2018년에 아프리카 청색 경제 전략을 발간하였다. 청색 경제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3,000억불의 경제활동과 5,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색 경제의 중요한 조건은 해양생물의 번성이다. 물고기가 없으면 어업이 불가능하고, 고래가 없으면 고래 관광이 불가능하다. 청색 경제의 일부로서, 바다의 어족자원과 어업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과 영양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어족자원은 연간 1,000만톤의 어획량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무게로 치면 1,000만 마리 소의 양이다. 이 어류들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획, 가공, 소비된다면, 어업경제는 아프리카 경제 연간 GDP를 500억불 상승시킬 것이다. 불행하게도, 해양생태계는 남획, 기후변화, 해양오염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어업은 또한 원양선단, 불법어선, 그리고 비효과적인 해양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은 청색 경제의 자연적 그리고 인간적 측면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과학과 역량구축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해로운 보조금을 철회 및/또는 방향 선회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들은 금융이 부재하면 좌절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청색 경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의 아프리카 정부기관들, 민간 및 비정부기구들과 아프리카 대륙의 지지자들은 연행일치를 보여 아프리카 청색 경제에 그들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 비용효과적인 옵션들을 우선순위

로 하는 지속가능한 해양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프리카 해양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한 정책 개혁들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출처: www.brookings.edu²⁾

²⁾<https://www.brookings.edu/articles/africas-blue-economy-can-continue-to-deliver-huge-benefits-to-the-continent/> (8월 8일 기사)